

한·일 축구 정기전 부활하나?

정몽준 회장 제안... 日 긍정적

아 라이벌 대결 재개 큰 관심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한국과 일본 축구 정기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쳐 아시아 최고의 라이벌 대결 부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협회 창립 75주년 기념 행사로 진행했던 지난 19일 한·일 OB올스타전을 함께 관전했던 정몽준 회장과 이누카이 모토아키 일본축구협회(JFA) 회장이 한·일 정기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21일 밝혔다.

정몽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덕담 수준으로 한·일 정기전 부활을 제안했고 이누카이 회장도 긍정적으로 겸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991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한·일 정기전이 다시 열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과 일본은 1971년 9월 서울에서 열린 뮌헨 올림픽 예선에서 말레이시아에 덤미를 잡히는 충격에 직후 양국 축구 발전을 위해 정기전을 갖기로 했고 첫 대회가 이듬해(1972년) 9월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박이천과 이치만이 한 골씩을 넣었지만 2-2로 비겼다.

이후 한·일 정기전은 1991년 7월27일

일본 나가사키 대회에서 한국이 하석주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하기까지 15차례 열렸다. 한국은 10승2무3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정기전은 1991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마지막 정기전까지 한국이 일본 전 7연승을 달리고 있던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일본이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중단을 제안했다는 말이 나왔다.

한국은 일본과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서 38승20무12패로 앞서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5월31일 친선경기에서 1-0으로 이긴 후 5년 넘게 3무1패로 무승 행진을 하며 일본에 고전하고 있다.

다만 A매치는 아니지만 1990년대 한국과 일본 축구를 이끌었던 왕년의 스타들이 참가한 19일 한·일 OB올스타전에서 박남영의 결승골을 앞세워 기분 좋은 1-0 승리를 낚았다.

/연합뉴스

전남 전국체전 불꽃놀이 안한다

'탄소 발생' 행사 감축

친환경 과일탑 등 설치

올해 전남에서 치러지는 '제89 전국체육대회'(10월 10일~16일)는 축포나 불꽃놀이 등 공해를 유발하는 행사를 폐지하는 등 '탄소중립체전'으로 치러진다.

탄소중립체전은 체육행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탄소 발생량을 감축하고 상쇄(Carbon off-set)하는 것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 탄소중립추진의향서를 제출해 전국체전 관련 홍보물과 안내도에 탄소

중립마크를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개·폐회식 때 화약냄새와 공해를 유발하는 축포·불꽃놀이 행사를 폐지하고, 친환경 과일탑·꽃탑조형물(거북선)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기념품 증정과 축포미사용 등 '탄소' 줄이는 8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개회식에는 얼음 팽귄이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빙으로 인해 지구의 섬들이 바다에 잠기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연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장 주변에 '탄소상쇄기금 모금함'을 설치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체전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여자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인 엘레나 이신바예바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신바예바는 25일 열리는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최대한 노력해서

세계新 또 넘겠다"

장대높이뛰기 이신바예바 입국

"야속은 못하지만 세계신기록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여자 장대높이뛰기 '지존' 엘레나 이신바예바(26·러시아)가 25일 열리는 2008 대구국제육상선수권대회 참석자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육상 경기연맹(IAAF) 월드투어에서 4m60으로 가뿐히 우승한 뒤 이날 방한한 이신바예바는 "세 번째 방한인데 때마다 친절하게 맞아줘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세계신기록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 대구스타디움에서 25 번째 기록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베이징올림픽에서 5m5의 세계신기록으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이신바예바는 이 종목에서 독보적인 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다. 세계신기록만 24번(실내 10회, 실외 14회) 작성했고 2013년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5m15를 향해 뛰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신바예바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스포츠토토가 주최하는 일반인 및 육상 유망주와 만남의 행사를 가진 뒤 오후 대구로 이동, 컨디션 조율을 들어갈 예정이다.



21일 서울월드컵구장에서 열린 K-리그 FC서울과 경남 FC 전에서 서울 정조국(오른쪽)과 경남 산토스가 공동으로 결승골을 넣어 1-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박주영 똑똑하고 개방적인 선수"

AS 모나코 동료들 칭찬 릴레이

"똑똑하고 개방적인 선수다." "효과적인 기술을 가진 선수다."

프랑스 프로축구 데뷔 무대에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친 박주영(23·모나코·사진)에 대해 팀 동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나코의 수비수 레안드로 쿠프레는 지난 20일(한국시간)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박주영은 아주 똑똑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선수"라며 "팀에 빨리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리앙과 첫 경기부터 박주영의 뛰어난 자질이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며 "박주영의 움직임은 수비수들의 짐

을 덜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드필더 카렐 메리엠 역시 칭찬 릴레이에 동참했다. 메리엠은 "데뷔전부터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다"며 "뛰어난 활동량과 골센스를 가진 공격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주영은 효과적인 기술을 가졌다"며 "볼을 끌지 않고 적절한 위치를 찾아나면서 효율적인 패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주영은 "좋은 시작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부담이 많아졌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유럽축구에 대해 잘 모르겠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라며 "리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난 여전히 수습생의 처지"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풀럼 설기현 첫 결장

설기현(29·풀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08-2009 시즌에서 처음으로 결장했고 프리미어리그 '빅4' 애스널은 볼턴 원더러스를 제물 삼아 선두로 올라섰다.

설기현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영국 랭커셔주 블랙번 이우드파크에서 끝난 블랙번 브로버스와 원정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풀럼 설기현 첫 결장

설기현(29·풀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08-2009 시즌에서 처음으로 결장했고 프리미어리그 '빅4' 애스널은 볼턴 원더러스를 제물 삼아 선두로 올라섰다.

설기현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영국 랭커셔주 블랙번 이우드파크에서 끝난 블랙번 브로버스와 원정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풀럼 설기현 첫 결장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8 : 00-MBC ESPN)

설기현은 2008년 5월 20일(한국시간) 2008-2009 시즌 첫 경기에서

▲08/09 NFL(피츠버그 : 필라델피아) (05 : 1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